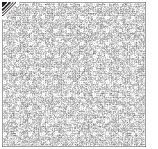




이수정 데레사 | 경기대학교 교수



어른이라는 것?

가족의 달인 5월을 위한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만났습니다. 근래에 발생했던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 간의 범죄 사건을 이야기하던 끝에 마지막 이슈라며 던진 질문은 ‘선생님은 좋은 어른이신가요?’란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성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겠지만, 제게는 갑자기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의문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어른이었던가?’

어젯밤 내내 그동안 만나본 어르신 중 가장 존경심이 우러났던 분이 어느 분인지,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회상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제정에 주축이 되신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영란 전 대법관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애들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일은 한없이 조심스럽기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애들 선생님을 찾아가갈 때마다 고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봉투였습니다. 당시로써는 관행적으로 얼마 이상은 넣어야 한다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우리 아이만 무성의한 부모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필자도 교단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식의 인사가 좋지 않은 일이란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역시 올해에도 졸업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언제나 식사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옛 스승을 생각하여 연락해오는 것은 고맙기 짝

이 없는 일입니다. 훌륭한 제자를 바라보는 것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일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물질적인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김영란법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간의 생활방식, 나아가 문화를 바꾸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쁜 관행들은 정말 잡초처럼 뿌리가 깊어서 속아내도 다시 자라곤 합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하여 이렇게 확연히 다른 규범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이들 학교에 빈손으로 찾아가서 담임선생님과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스승의 날에 선물이나 꽃, 상품권을 받는 일들이 이제 나쁜 일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던 과정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입법과 새로운 규범에 순응하는 한국인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코로나 이후 좀 더 정의롭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서로의 존재를 입증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이 가치로운 사회,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가 아닐지요?

를 이끄는
성경구절

구분은
산인들의
하느님이시여.

주키 20. 38 박철 베네딕도

박철 베네딕도 | 대치동성당